



**ANNUAL
REVIEW**

KR

2019



together possible™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1961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 5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 기관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산시키고, 환경오염 및 불필요한 소비절감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활동해 왔으며 2014년 공식적으로 WWF-Korea가 설립되었습니다.

제목: WWF-Korea 연간보고서 2019

발행인: 손성환

발행처: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발행일: 2020년 4월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

표지 사진: © NASA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인용 표시: WWF-Korea 연간보고서 2018

© Text and graphics 2018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목차

인사말	4
WWF 소개	6
한국의 우선 과제	8
기후·에너지	10
해양	18
시민과의 소통	24
보고서	31
파트너십	32
해외 WWF 보전활동 소개	34
2019년 회계	38



이 보고서는 세계산림책임관리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인증받은 종이와 방식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인사말



WWF-Korea
이사장
손성환

아마존 열대우림의 황폐화와 캘리포니아 화재, 녹아내리고 있는 북극의 빙하, 유럽의 전례 없는 이상기후, 생물다양성 감소, 산호 삼각지대의 백화현상 모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WWF(세계자연기금)가 기후·에너지와 해양, 산림, 담수, 야생동물, 식량 등 자연보존 전 영역에 걸쳐 활동하는 건 자연과 인간이 '지구라는 생태계' 안에서 공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WWF-Korea가 국내에서 문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환경에 대한 국내외 정부와 기업, 사회 인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대중 사이에서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 구매를 의미하는 '개념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세계의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WWF-Korea는 기후행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제기구와 정부, 학계, 기업, 시민단체와 함께 세계 기후과학의 현황과 국내 경제에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 기후비상사태에 대응하려면 환경적인 영향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WWF-Korea는 국내 지속가능한 금융 확산을 목적으로 기후 프라이머 워크숍 개최, "TCFD가 한국 기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보고서 발간 등 국내외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업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WWF-Korea는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과 SBT(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를 지원했습니다. WWF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기후비상사태로 야기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생태발자국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파리협정 1.5°C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세계 12%의 사람들이 종사하는 삶의 터전일뿐 아니라 30억 명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WWF-Korea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채워진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드는 일, WWF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구촌 최대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어스아워는 올해에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188개국 7000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어스아워에는 서울N타워와 송례문, 국회의사당 등 한국을 상징하는 건물들이 소등되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 난지도 공원에서 진행된 자연스러운 하루, 기후비상사태의 심각성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된 북극곰 캠페인 등 WWF-Korea는 시민과의 소통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WWF의 파트너사인 해상 풍력 발전 기업 오스테드(Ørsted)가 탈화석 에너지 생산을 선언한 후 약 18개월 동안 나스닥(NASDAQ) 주가가 250% 성장했다는 사실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덴마크의 국영 기업인 오스테드가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정부와 기업은 물론 자연을 대하는 시민의 성숙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후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과 제도, 기업문화,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 여러분과 함께 WWF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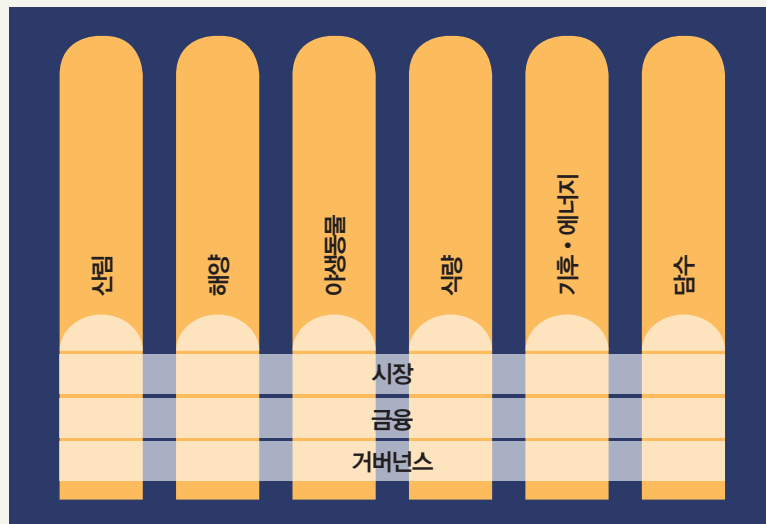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소개

야생동물 보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1961년 스위스에서 World Wildlife Fund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약하던 1986년 기관명을 World Wild Fund for Nature로 변경하고 야생동물 보호에서 자연보전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했다.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

WWF는 현재 500만여 명의 후원자와 1600만이 넘는 SNS 팔로워의 성원에 힘입어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지역에서 보전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매년 전세계 자연보전 분야 비정부기구를 대상으로 한 활동 평가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WWF는 세계 최대 최고의 자연보전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높은 신뢰의 배경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호보완적인 협력, WWF만의 과학적 자연보전 대책 제시를 꼽을 수 있다. WWF는 기후·에너지와 해양, 야생동물, 산림, 담수, 식량 등 6개 분야로 보전 영역을 구체화하고 시장과 금융, 거버넌스 등 3개 동력(Driver)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인 보전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WWF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각 영역별 목표와 핵심 전략, 과학적 연구 결과 등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다.

WWF는 런던동물학회와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와 함께 2년 마다 발간하는 지구생명보고서를 통해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발자국 감축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자연보전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는 WWF의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WWF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회의 참여, 정부기관과 협력, 자연보전을 보장하는 금융의 확산, 기업과의 협력 등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보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류의 생산활동이 모든 밸류체인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측정·평가 가능한 과학적 지표를 제시하는 인증프로그램 정착을 지원하는 일도 WWF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WWF는 자연속에서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WWF 글로벌 목표

기후·에너지

기후변화로부터 회복가능한 저탄소 사회 구축



해양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도모와



야생동물

생물 개체 수 회복 및 보전



산림

산림 보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웰빙 증진 및 유지



담수

사람과 자연을 위한 물 보전



식량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 마련



동력

시장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 전환



금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민간 재원 확대



거버넌스

6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정책 강화





WWF 우선 보전 과제:
기후·에너지

기후 · 에너지

'기후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라는 단어가 2019년 가장 화제가 되었던 단어로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의해 선정되었다. '기후비상사태'는 기후변화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막고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의된다.

이는 기후변화가 생태계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경제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다. 실제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0년 발행한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10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약 2,800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OECD는 한국을 회원국 중 대기 오염으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을 국가로 예상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역시 2018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국내 의료 비용이 연간 약 451.6억원이라고 했다.

유엔기후과학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2018년 10월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1.5°C를 넘어 2°C 이상으로 오르면 야생동물 서식지와 생물종의 감소는 물론, 빙하 감소와 해수면 상승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연의 위기가 인류의 건강과 생계, 안보, 경제 성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계치를 넘어서면 자연 생태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잃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생태·사회·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줄여야 한다. 달리 말해 1.5°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교통, 식량, 금융 등 모든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후행동 계획을 향상시켜 조속히 행동에 옮겨야 한다.

WWF는 한국의 기후 목표를 파리협정 1.5°C 목표에 부합하도록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기후와 에너지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적 플랫폼을 제공한다. WWF는 또한 기업이 과학 기반목표(SBT) 이니셔티브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기후행동을 향상시켜 한국의 기후 목표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기업의 기후행동 강화를 통한 한국 기후행동의 극대화
- 지식 공유 통합 플랫폼 제공
- 기업의 기후·에너지 관련 전략 개발 지원



© Carlos G VALLECILLO WWF-International

추진 활동

가이드 소개 및 모범 사례 공유

과학기반감축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SBTi는 기업이 과학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세우고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WWF와 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연연구소(WRI)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시작되었다.

SBTi 참여 방법은 크게 △SBT 수립을 선언하는 1단계와 △수립한 SBT를 이니셔티브의 검증 받는 2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약 650개의 기업이 SBT 선언을 통해 기후행동에 동참하였으며 87개의 주요 기업이 파리협정 목표인 1.5°C에 맞추어 목표를 수립했다. WWF는 라운드테이블과 워크숍을 통해 SBTi 목표 수립 방법과 모범 사례를 기업에 소개했다.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Right to Renewable Energy Initiative: RREi)

WWF는 2018년 11월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에너지시민연대, 한국 사회 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석탄, 원자력, LNG 등 다른 발전원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입법화를 위함이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과 사용 의사 표명을 유도하고 법률적인 재생에너지 구매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제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끌어내고자 한다.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파리협정 이후 지속가능한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었다. 사회적 투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기후 관련 리스크를 감지하고 사업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가령 대출 기준에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대출을 거절하기도 한다. WWF는 기후 프라이머(Climate Primer) 워크숍을 개최하고 과학과 정책, 기술, 금융의 맥락에서 기후 이슈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기업이 가진 문제와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공동 행동을 위한 플랫폼 제공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Climate Action Round-Table: CART)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통합적인 기후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WWF는 CDP, UNGC와 함께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주최했다.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은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기후와 에너지 관련 이슈와 행동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제공해준다. 2019년 3월 개최된 최근 세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CART 참가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세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내 현황과 전망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관한 기업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기회를 가졌다.

- 세계 저탄소 경로 달성과 기업에 대한 시사점
- 국내 기후·에너지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과 전망 점검을 통한 기업의 대응 방안 모색
-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언



기후행동 콘퍼런스(Climature Action Conference, CAC)

WWF는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발간에 맞추어 2018년 10월 10일 온도 상승 폭을 1.5°C로 제한하고 기후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행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의 후원으로 씨티은행과 WWF가 공동주최하였고 기업,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에서 약 250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세계 기후과학의 현황과 국내 경제주체에 주는 시사점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 WWF-Korea



© WWF-Korea



기후행동 콘퍼런스 주요 내용

기후행동 콘퍼런스는 같은 달 8일 IPCC에서 발표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의 저자 아로마 레비 박사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였다. 레비 박사 발표가 강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 1.5°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대규모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이 전환의 과정에서 경제와 사회의 안정성(stability)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
- 1.5°C를 향한 세상에서 국경은 의미가 없을 것이며, 90억에 이를 인류가 문명을 유지하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특히 산업화 국가의 노력이 절실함.

이러한 기조연설에서 WWF 기후·에너지 수석 전문위원 크리스토퍼 웨버 박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대응의 위급성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밝혔다.

- 1.5°C 한계 초과(overshoot: 일시적으로 전 세계 평균온도가 1.5°C를 넘는 상황)를 피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2년 동안 배출량을 약 50%, 석탄발전을 약 70%를 줄이는 급격한 감축이 필요함.
- 에너지, 도시, 토지 및 식량에 있어 시스템적인 변화를 강조하며, 온실가스 제거(CDR)를 미룰수록 제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비용도 증가할 것임.

첫 번째 세션 '파리협정 1.5°C 목표와 경제 주체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서 WWF 일본 CEO 류지 츠츠이(Ryuji Tsutsui)는 IMF를 이겨낸 한국의 저력과 세계 속 한국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 도요타 등 60개 이상의 일본 대기업이 '과학기반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참여하고 있음. 세계 시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글로벌 기업 경쟁력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100여 개가 넘는 기업과 도쿄, 요코하마 등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로 '일본 기후행동 이니셔티브(Japan Climate Action Initiative)'에 동참함. 기업, 지방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음. 한국의 기후행동 리더십을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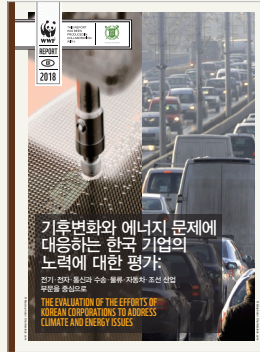
두 번째 세션 '파리협정 1.5°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에서, 에너지전환포럼 홍종호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한국이 1.5°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도전이자 기회로 활용해야 함.
-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기후와 에너지 이슈에 대한 통찰 제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한국 기업의 노력에 대한 평가

WWF는 서울대학교 윤순진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업의 기후행동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전자(전기·전자·통신) 산업의 16개 기업과 수송(수송·물류·자동차·조선) 산업의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 및 성과, 정보공개 관점의 기후행동 현황을 분석했다. 기업의 기후행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완 및 개선 부문에 관하여 제언했다. 동시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부 정책, 이해관계자의 요구(외국인 주식 보유율) 등의 중요성과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TCFD가 한국 기업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TCFD는 기후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의미한다. G20는 금융안정위원회에 기후변화 관련 이슈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TCFD가 2015년 설립되었다. WWF와 고려대학교 김성우 교수 연구팀은 기후금융에 관한 연구를 공동 진행했다. TCFD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 정부 부처가 지정한 탄소배출권 할당대상 관리기업 633곳을 △에너지와 △교통 △원자재·건축 △농산물·식품·임산물 4개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탄소배출권 구매 전/후의 영업이익 및 기업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을 위한 전략을 제언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기후행동 서포터즈(Climat Action Supporters)

기후행동에 있어 청년층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년층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를 위해 WWF는 3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기후행동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포터즈는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과 시각을 넓히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다.

© WWF-Korea



판다토크(Panda Talks)

WWF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TED 강연 형식을 빌린 판다토크를 진행했다. WWF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재승 교수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기후행동 서포터즈의 우리 모두의 기후행동 방향을 청년의 시각에서 들었다. 아울러, 이정준 다큐멘터리 감독은 고래의 영상과 함께 촬영하며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전했다.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자연보전의 중요성에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 WWF-Korea

활동 성과

1.5°C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해설을 통한 기후행동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 WWF는 이러한 내용이 골자를 이룬 2018년 10월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 발간에 맞춰 “기후행동 콘퍼런스 2018: 기후변화 1.5°C 목표달성을 위한 모두의 전략”을 개최하였다. 기업, 금융, 에너지전환 등 여러 부문에서 1.5°C가 국내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기후행동의 연관성과 중요성, 긴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 마켓에서의 TCFD에 대한 본격적 논의 활성화

WWF는 ‘기후변화 재무영향’ 연구와 보고서 발간, 기후금융 관련 Climate Primer 워크숍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및 금융기관의 기후행동 전략 방안을 제언했다. 이를 통해 국내 마켓에서의 기후를 재무적, 기업의 사업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후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기후행동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기준 제시

WWF는 ‘기업 기후행동 분석’ 연구와 보고서 발간을 통해 기업별 기후행동 현황을 분석하고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 국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업가치 분석과 기업의 기후행동이 수동적 규제대응을 넘어서는 기업가치 관리를 통한 선제적 투자의 당위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기업의 기후행동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공론화

WWF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해결을 가속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공동 출범했다. 국내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 활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WWF 우선 보전 과제:
해양

1.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수산물은 무궁무진한 자원이 아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자행되는 무분별한 남획과 불법 어업,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더 이상 명태를 볼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 세계 어장의 약 60%에서 환경적 수용력의 최대치로 어업이 이루어지고, 33%에서는 이미 이를 초과한 '남획'이 발생하고 있다. 남획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다. 과학자들은 연간 약 2,600만 톤의 수산물에 불법어업 IUU어업으로 잡히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미화 약 100억~2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FAO). IUU 어업은 수산자원 고갈뿐 아니라 합법적 어업관리와 수산물 시장을 교란하며, 인권유린과 어업자들 간의 충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심지어 불법어선은 마약, 인신매매 등 심각한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어 범지구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WWF는 지속가능한 참치시장을 위해 노력한다. 다랑어(참치)는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가장 높은 어류 중 하나로 약 70개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과 같이 먼바다, 즉 "원양"에 산다. 워낙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 소비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남획과 불법어업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다랑어는 개체수가 급감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올라있다. 이 외에도 다랑어를 잡기 위한 그물과 낚시줄에 상어, 바다거북, 고래, 바다새가 '혼획'되어 의미 없이 죽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폐그물과 낚시줄, 해양 쓰레기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에 더해 인권문제도 발생한다.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종종 심각한 폭력과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대만, 스페인과 함께 전 세계 5대 다랑어 어업국가 중 하나다. 이 5개 원양 대국이 전 세계 다랑어의 대부분을 잡고 있으니 지구의 공유자원인 다랑어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다랑어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WWF는 시장변화에 집중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다랑어의 수출시장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지속가능한 어업'방식을 통해 잡힌 다랑어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내가 먹는 수산물이 어떻게 잡혀 식탁에 오르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소비자들 이 점점 증가하며 이 흐름은 국내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1.지속가능한 다랑어 어업을 위한 정부-업계-시민사회 라운드테이블 Korean Round-table for Sustainable Tuna (KORST)

WWF는 우리나라 다랑어 원양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다랑어 어업을 위한 정부-업계-시민사회 라운드테이블(KORST: Korean Round-table for Sustainable Tuna)"을 발족하고,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2019.6.12, 서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물 등 정부 및 기관과 함께 원양어업의 생산, 유통시장에 주요 관계자인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선우실업, 신현수산, 한성기업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 환경 NGO들과 MSC코리아, 컨트롤유니온, 로이드인증원 등 인증에 관련된 기관의 목소리가 더해져 한국의 원양산업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인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회)의 소개, 필요성, 인증절차가 집중 논의되었다.



© WWF-Korea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란?

1996년 WWF와 유니레버사가 설립한 MSC 해양관리협회는 미래의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가능어업 국제 규격을 제정하고 에코라벨 도입을 장려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8년 한국사무소 개소(부산)

MSC 인증제도란?

어업과 지속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국제인증제도. 인증 받은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MSC로고가 부착되어 판매되어, 더 많은 어업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인센티브를 제공.

지속가능어업 국제규격 기준

- 기준 1. 어업 대상 어종의 자원량의 지속가능성
- 기준 2.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어업의 환경적 영향
- 기준 3. 어업 관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과성

2.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이란?

세계 식량기구 FAO의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 정의

I 불법어업

-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 행위
- 어업 관련 국제·국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어업 행위

II 비보고 어업

- 관련 규제 당국에 어업 행위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행위
- 국제협약에 따른 어업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

III 비규제 어업

- 국적이 없는 선박 또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의 어업행위
- 국내·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해양생물 보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업하는 행위

원양 산업 제도 개선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IUU 국가로 지정되어 경고 조치인 ‘옐로카드’를 받은 바 있다. WWF는 IUU어업을 근절·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법제화한 ‘원양산업발전법’의 실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재개정 절차와 정부-업계-NGO로 구성된 ‘원양산업 제도 개선’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수산자원의 주인인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IUU어업의 근절·예방을 위한 WWF의 제안

1.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수준 강화
2. 투명한 어업 관리를 위한 원양어선 데이터베이스 공개
3. IUU어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여, IUU어업 인센티브 제거
4. NGO,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이력추적성과 투명성

IUU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수산물 구매하는 것이다. 어업 현장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산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는지 소비자들이 수산물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UU어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 CCTV, 위성 GPS, 스마트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이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WWF는 원양수산물의 정보투명성과 이력추적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업을 규제·감독·관리하는 정부, 어업을 실시하는 원양 기업, 과학적 조연을 제공할 과학자·전문가, 중간 유통사들과 협력한다.

II. 지속가능한 양식업

ASC인증 수산물 10% 달성을 위한 완도의 노력

세계는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수산자원 고갈은 심화됨에 따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식어업 생산량이 어선 어업(‘자연산’)의 2배에 달한다.

양식어업은 수산자원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주변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과도하게 밀집된 사육으로 환경 훼손을 일으키는가 하면 스티로폼, 양식 어구 등 해양쓰레기 문제와 함께 종종 노동자 인권문제도 일어난다.

양식수산물에 부착된 ASC인증마크는 양식의 지속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양식업에 부여된다. WWF는 우리나라 최초 ASC인증 양식장을 만들기 위해, 완도에 위치한 전북 생산업체인 ‘청산바다’와 2016년 10월 MOU를 체결하고, 청산바다에 전북 원어를 공급하는 양식어가들의 ASC 인증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8년 8월 청산바다와 14개 양식어가가 국내 최초로 ASC 인증을 받았다.

이외에도 WWF는 어민교육, ASC 인증 컨설팅, ASC 인증 수산물 소비 확대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 WWF-Korea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란?

2010년 WWF(세계자연기금)과 IDH(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비영리기관으로 해양자원의 남획과 양식의 과밀화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 인증제도

ASC 인증기준

- 원칙 1. 양식장이 위치한 지역에 적용되는 법적 요구 사항과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법규를 따라야 한다.
- 원칙 2. 서식지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역효과를 회피, 해결하고 완화한다.
- 원칙 3. 야생종 개체의 건강과 유전적 다양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회피하고 완화한다.
- 원칙 4. 환경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질병과 해충을 관리한다.
- 원칙 5.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한다.
- 원칙 6. 좋은 이웃 그리고 의식 있는 연안 주민이 되어야 한다.
- 원칙 7. 문화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양식장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MSC/ASC 인증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리테일러의 노력-하얏트

전 세계 54개국 177개 호텔·리조트를 보유한 하얏트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전체 수산물의 25%를 MSC/ASC 인증수산물로 구매하기로 WWF와 약속하였다. 이러한 WWF-하얏트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따라, 국내 하얏트 호텔 5곳은 인증 수산물을 적극 구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MSC/ASC 인증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ASC 인증을 받은 완도 청산바다 전복을 구매하고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수산물 구매를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다.



© WWF-Korea

III. 우리바다 수산자원 보전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가파르게 감소함에 따라 WWF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은 수차례 협의회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첫째, 쉽게 이용 가능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신호등 형식을 빌려, 주요 수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하는 소비 권장 체장보다 크기가 큰 잡아도 되는 수산물은 “녹색”으로 표시하여 소비를 권장한다. 금지체장과 소비 권장 체장 사이의 수산물(소비 주의종)은 “노란색”, 금지체장 이하(소비 위험종)의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소비자들은 권장되는 시기와 크기의 수산물 정보를 알 수 있고 능동적으로 수산자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 어플리케이션

SKT 9:29

← ENG 한국어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명	고등어
영명	Chub mackerel
학명	Scomber japonicus

소비권장기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권장 ■ 자제 ■ 지양

소비권장크기

22.5cm 31.1cm

■ 권장 ■ 자제 ■ 지양

얼마나 잡고 있을까?

© WWF-Korea

둘째, 어린 물고기인 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치어럽(cheer-luv)”을 2019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범국민 인식증진 캠페인으로, 손목에 감기는 팔찌 형태의 눈금자에 주요 어종의 포획금지체장을 표시하여, 낚시할 때 누구나 쉽게 팔찌에 표시된 자를 이용하여 어종의 길이를 그 자리에서 확인한 뒤, 치어일 경우에 놓아줄 수 있으며,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도 어린 물고기인 지 확인할 수 있다.

치어럽(Cheer-luv); 치어보호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셋째, 시민사회-학계-정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워킹 그룹을 운영한다.



혼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상괘이 보전

혼획 : 어업에서 특정 어패류를 잡으려고 수행한 활동의 결과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것.

상괘이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에만 사는 작은 돌고래다. 웃는 표정으로 유명해 ‘웃는 고래’라고도 불리는 이 토종 돌고래는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만 서식한다. 그러나 고기잡이 그물에 의도치 않게 걸려 매년 수 천마리가 죽고 있는데, 이미 90%의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어 멸종이 우려된다. 오랫동안 우리 바다에서 함께 살았지만 수줍은 성격 탓에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한 비극이 오랜 시간 안타깝게 이어지며 멸종의 위기까지 간 것이다. 상괘이 혼획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어구 ‘인강망’은 거센 조류를 이용하여 작은 새우부터 포유류인 상괘이까지 싹쓸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혼획문제는 단순히 개체수 감소뿐 아니라, 우리 수산물 수출 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2022년 1월부터는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모든 수산물은 어업 시 해양포유류 혼획이 있는 경우 수출이 제한되므로 하루 빨리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인식된다. 현재 상괘이는 해양수산부에 정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혼획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실질적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등급(red

list)에 멸종위기(endangered) 등급에 올라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어구에 부착하는 상괘이 탈출망을 개발하여 혼획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나, 어민 설득과 실행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근본적으로 혼획을 줄이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WWF는 상괘이 혼획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MBC 다큐멘터리 ‘상괘이가 사라진다’를 재구성, 홍보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포하고, 다각도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제포경위원회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전문가 그룹과 워크샵 등을 통해 인간활동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방안을 찾고 있다. 혼획으로 사실상 멸종이라고 알려진 멕시코의 바키타 돌고래와 앙쯔강 돌고래가 좋은 예다. 상괘이를 이들의 반열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국제회의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에 모션으로 상정되도록 제출하였다. 만약 채택될 경우 2020년 총회에서 상괘이 보전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혼획 없는 수산물 유통망 개선, 정책과 법령 정비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과의 소통

Earth Hour

Six, 오, quatre, 三, نازنشا, Uno.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서울의 남산타워, 파리의 에펠탑, 홍콩의 침사추이,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멕시코 시티의 차폴테펙 성. 2019년 3월 30일 오후 8시 30분 전 세계 188개국을 대표하는 1만8천여 개 건물의 전등이 꺼졌다.

WWF는 2019년 3월 30일 “기후변화와 멸종위기”를 주제로 서울 삼성역 코엑스에서 어스아워(Earth Hour,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를 개최했다. WWF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박서준의 카운트다운으로 시작된 소등 행사는 WWF 손성환 이사장을 비롯해 코엑스 방문객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서 진행된 사전행사에는 ‘멸종위기 동물 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소등이 이루어진 본 행사 이후에는 어스아워 촛불을 켜고 조형물에 촛불을 올려두는 행사가 이어졌다.

총 20만 명이 참가하고 올해 13번째를 맞이한 어스아워에는 코엑스와 남산타워 외에도 63빌딩과 승례문, 롯데월드타워, 서울시청, 국회의사당 외 가양대교와 당산철도를 포함한 서울의 남북을 잇는 16개 다리, 김포국제공항과 부산 영하의 전당, 제주 오설록 티뮤지엄, 대전 엑스포 한빛탑 등 민간·정부를 아울러 전국 각지를 상징하는 57개 건물이 참여했다.

호주에서 2007년 시작된 어스아워는 1년에 1번 1시간 만이라도 자연의 소중함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호주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세계 최대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으로 성장했다.

지난 12년간 WWF가 주도해온 어스아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WWF-Korea

북극곰 캠페인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자 빙하가 녹아내렸다. 서식지를 잃은 60여 마리 북극곰은 사냥을 하기 위해 더 멀리 떠나야 했지만 이내 길을 잃고 만다. 생존을 위해 이들이 다다른 곳은 러시아 시베리아의 북극마을, 노바야 제믈랴. 조명탄을 쏘며 곰의 접근을 막는 사람들. 외딴 시베리아 마을에 하얀 포식자의 등장을 환영하는 인간은 없다.

해빙에 의존해 살아가는 북극곰은 생태계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지표종으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극지방의 기온이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가량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석유탄사와 부분별한 개발, 다이옥신과 DDT 등의 독성물질 오염도 북극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WWF는 현재 북극곰이 2만2000에서 3만1000 마리의 북극곰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까지 북극의 여름에는 얼음이 사라지고, 2050년이 되면 북극곰의 3분의 1, 100년 후에는 지구 상의 북극곰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WWF는 기후변화와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북극곰 홍보의 일환으로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곰” 팀, 나레이션을 맡았던 배우 정해인과 그 밖에 배우 이유리, 설현과 함께 Save Bear 캠페인을 진행했다.

북극곰 보호를 위해 WWF가 하는 일

- 기후변화 대응
- 주요 서식지 보호
- 산업화가 미치는 영향 줄이기
- 더 안전한 커뮤니티 생성
- 지속가능한 관광 장려
- 지속가능한 사냥 확보
- 북극곰 연구 지원
- 북극곰의 미래 검토



© naturepl.com Steven Kazdowski WWF

Our Planet

인간의 지구가 아닌 자연과 공존하는 우리의 지구



© Brian J. Skerry National Geographic Stock WWF



빙하와 함께 서식지가 사라진 바다 코끼리.

살 곳을 찾아 알래스카 옆 러시아 서북부 추코카 지역으로 몰려든 최대 2톤에 달하는 거구들이 작은 섬 비좁은 낭떠러지 위에 가득하다.

얼음 위에서 잠들고 먹이를 찾아 바다로 뛰어들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멀게는 150km 씩 먹이를 찾아 헤엄치고 살 곳을 찾아 절벽을 오르는 이들의 최대 사망원인은 낙상. 돌레 500m 조금 넘는 섬을 둘러싼 작은 해변에 검붉은 시체가 가득하다. 인간의 기후변화가 만든 새로운 풍경이다.

총 8개의 에피소드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우리의 지구 (Our Planet)'에는 바다코끼리 외에도 △멸종 직전에 놓인 콩고 열대우림의 실버마운틴고릴라(silver mountain gorilla) 이야기 △수산물 남획과 해양온난화로 신음하는 산호초 숲 등과 같은 자연과 동물의 이야기뿐 아니라 △인구과잉과 △인류의 식량문제 △물 부족 등 시청자들에게 생명의 터전인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WWF와 넷플릭스, 실버백 필름이 공동 제작해 지난 4월 15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우리의 지구'는 3500일 동안 총 600여명의 제작진이 50개국에서 촬영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에미상 시상식 10개 부문 후보에 올라 다큐멘터리 영화 부문과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부문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에미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아텐버러 경은 BBC의 PD로 1950년 방송에 입문했고 영국 자연 다큐멘터리에 남긴 공로를 인정받아 1985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다.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플라스틱과 물,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영향력이 큰 집단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정부의 규제는 물론 생산과 유통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지구. Our Planet이 던지는 메시지다.

인간의 지구가 아닌 자연과 공존하는 "우리의 지구"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하루

쓰레기 위에 꽃과 풀, 나무를 심어 공원이 된 곳.

WWF는 지난 2018년 9월 15일, 10월 12일 두 번에 걸쳐 총 66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서울 난지도 노을공원에 나무를 심는 행사를 개최했다. '자연스러운 하루'는 후원자들의 기부금이 WWF 인도네시아에 전달되어 200 그루의 나무가 발리섬에 함께 뿌리내리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WWF 후원자와 WWF-Korea, WWF-Indonesia, 재단법인 생명의 숲, 노을공원 시민모임 등이 함께했다.

© WWF-Korea



지구의 날

“공장 그만 만들어서 미세먼지 줄이기.”

“미세먼지가 싫어요.”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연보전 서약서에 서명한 어린이들은 뽀뽀뽀한 글씨가 WWF가 설치한 부스벽에 가득 찼다.

WWF는 2019년 4월 2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WWF는 미세먼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약 300명의 시민들이 WWF 부스를 방문해 생활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서약했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탈석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 행진도 포함됐다.



차 없는 날

서울시청에서 광화문까지.

차로 가득 차 있던 서울의 중심이 9월 16일 하루 동안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WWF는 '차 없는 날'을 맞아 '지구를 지키기 위한 탄소발자국 줄이기'라는 주제로 △판다와 차 없는 세종대로 걷기, △판다와 무동력 퍼레이드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WWF 부스를 찾아온 시민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탄소발자국을 줄이겠다는 서약을 했다.

자동차 없는 세종대로에서 시민들이 플라스틱 없는 깨끗한 지구를 만들자는 취지로 서울시가 개최했다.



파트너십

WWF-Korea는 보전(Conservation)과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맺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과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파트너 기업과 그들과의 협력관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헤럴드

헤럴드는 WWF-Korea의 가장 오랜 파트너사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실천하며 한국 대중들이 자연보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한 다양한 정보전달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다. 특히 비지정 기부(unrestricted donation)방식으로 기부함으로써, WWF의 국내 주요 보전활동 전반기 지원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과는 2018년부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노력을 위하여 '내일을 위한 변화 (Change Now for Tomorrow)' 기후행동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증진과 기업들의 행동변화를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대학생 기후변화 서포터즈를 함께 운영했다. 이 외에도 컨퍼런스 및 기업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하고 연구보고서 발간 및 임직원 교육과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한국지사는 2017년부터 WWF-Kore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함께 물환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물환원 프로젝트는 코카-콜라가 음료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만큼 물 부족 지역에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된 물을 정화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2018년 프로젝트에 이어 2019년에도 김해시에서 저수지 준설 및 정화 식물 식재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3차년도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슈퍼빈이 기획한 쓰레기마트에도 참여하여 음료 캔과 페트를 기계로 통해 포인트로 전환하여 마트에서 전시되어 있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통해 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HSBC

WWF와 HSBC는 2012년 글로벌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HSBC 물 프로젝트(Water Programme)'를 함께 해오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8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습지복원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HSBC 임직원 및 가족은 수자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한강과 태안 등 습지대에서 자연정화 활동 및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자생종 식재 등의 활동을 했다.



케이투코리아

K2는 WWF와 함께 자연보전 가치를 실천하는 '어스키퍼(Earth Keeper)'를 모집했으며 첫 번째 '어스키퍼'는 캣차카 반도로 떠나 자연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며 야생물공의 생태를 관찰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WWF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국내에서도 반달가슴곰 관련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지리산 노고단길 생태탐방을 진행하여 자연보전과 복원사업의 의미를 배웠다. 또한 노을공원에 나무심기 활동을 통해 '도시 숲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김해시 진례면 시례리의 신기마을과 하촌마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50% 이상 전 기요금에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해당 마을에서 친환경 농업 교육도 실시해 통합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기업 후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일치시켜 마을이 에너지 자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트코리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세이브더펄크' 캠페인을 진행했다.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자연보전에 대한 대중 인식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NS 릴레이 챌린지인 '세이브더펄크 챌린지'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바다를 주제로 한 판다토크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커넥티드랩

커넥티드랩은 WWF와 협력하여 자동차의 대체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를 통해 탄소배출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기자전거의 활성화와 대중인식제고를 위해 'Mileage for Red List'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여 전기자전거를 1,000km 돌파한 고객에게 WWF 머그컵을 증정했으며 '올 패밀리 뮤직 페스티벌'에 공동부스를 설치하여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제주패스

제주패스는 WWF와 함께 'No more Plastic Islands' 캠페인 진행하고 WWF 브랜드 라이선싱 텀블러 제품을 출시했다. 또한, 제주도 내 카페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하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텀블러 사용 인증 게시물을 올리고 지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이 외에도 신세계, 삼성화재, 코오롱, 영원홀딩스, 컴투스, 한세엠케이, 네이처가든, 공감네트워크, 윈블리에 서 자선 기부에 참여하여 WWF의 자연보전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해외 WWF 보전활동 소개

화염으로 뒤덮인 지구

아마존과 캘리포니아, 인도네시아, 호주, 유럽까지.

올 한 해, 전 세계가 화재로 신음했다.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하며 지구의 폐로 알려진 아마존에서만 올해 최소 72,000회에 이르는 화재가 일어나 790,000km² 규모의 열대우림이 소실되었다. WWF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상업성 높은 경작지 확보를 위한 산림개간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의 중반이 지난 직후 브라질 아마존의 불법방화로 인한 산림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78%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 역시 같은 이유로 2015년 이후에만 서울 면적의 4분의 3이 잿더미로 변했다.

방화는 산림개간의 마지막 단계이다. 울창한 숲이 사라진 땅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업과 현지인들은 우선 나무를 잘라내고 나무가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몇 개월 지나고 이렇게 잘라낸 나무에 불을 붙이면 바삭 마른 나무는 이내 재가 되어 경작지의 거름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 역시 지난 11월 발생한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된 캠프화이어 화재로 큰 고통을 겪었다. 당시 화재로 85명이 사망하고 620km²가 소실되었다. 서울 면적의 약 3배 가 며칠 만에 사라진 것. 이외에도 14,000 여 가구, 530 여개의 상업시설이 불탔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피해 보험액만 최소 85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된다.

캘리포니아 주 소방 당국은 불길에 급속히 확산하는 이유로 무려 210일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적은 강수량 때문에 빈번한 자연화재를 일어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올 한 해만 약 3237 km²에 화재피해를 입었다.



© Brent Stirton/Getty Images WWF

WWF는 아마존과 캘리포니아의 화재와 녹고 있는 북극의 얼음, 유럽의 전례 없는 이상기후,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산호 삼각지대의 백화현상 모두 긴밀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는 자연재해가 만드는 악순환에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열대우림 농지 개간은 숲이 생산하는 산소의 양을 줄일 뿐 아니라 기존의 강수 시스템을 교란시켜 숲을 황폐화시킨다. 줄어든 강수량은 농작물 생산을 저해하고, 생산량 감소는 다시 더 많은 농경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져 더 넓은 지역의 숲이 파괴된다.

마찬가지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태양 복사열 반사 면적이 좁아져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 자연 화재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이산화탄소 증가로 연결된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더 많은 북극의 얼음을 녹인다. 즉, 북극의 빙하와 지난 11월 발생한 캘리포니아 대 화재,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유럽의 자연재해 모두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 Brent Stirton/Getty Images WWF

WWF-Brazil이 설립된 1996년부터 WWF는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 지역사회와 원주민, 정부, 민간 부문 외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며 아마존 산림과 생물 다양성,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1. 산림채벌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2. 생태군 보전 가치 확대를 위한 사회적 참여 확대
3. 생물다양성 조사
4. 산림복원 및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경쟁력 증진 유도
5. 공공 및 민간, 금융 분야에 적용할 사회적·환경적 기준 마련
6. 건강한 자연을 위한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7. 친환경 농산물 등록제 및 환경보전 식물 도입 기여

야생동물 불법거래

코벨소의 뿔, 상어의 지느러미, 천산갑 비늘, 재규어의 이빨, 호랑이의 가죽, 보신용 혹은 의료용, 아니면 그냥 장식용 상품을 위한 동물들의 희생.

매년 최소 수 억 개의 야생 동·식물이 식량과 애완동물, 장신구, 화초, 가죽, 수집품, 의약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야생 동·식물 시장은 1996년에서 2001년 사이에만 8800만 이상의 야생 난초, 620만의 야생 조류, 750만의 파충류가 거래되었을 정도로 큰 시장.

모든 야생 동·식물 거래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야생 동·식물 거래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연 훼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연간 230억 달러(약 27조 710억원) 규모의 시장이다.

지난 10년간 100만 마리 이상의 천산갑이 의료용 혹은 구두와 지갑에 사용될 가죽 때문에 죽었다. 아프리카에서만 매일 적어도 3마리의 코벨소, 매년 최소 20,000 마리의 코끼리가 죽음을 당하고 있다. 당구공과 피아노의 건반, 젓가락 따위에 사용되는 상아는 1kg 당 가격이 최고 250만원에 달하는 고부가 상품이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밀렵꾼들이 끊임없는 살해를 일삼는 이유다.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싱가포르 정부가 상아를 대상으로 국내 유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하며 예외 규정 두지 않았던 것. 싱가포르는 작년 한 해에만 37톤에 이르는 천산갑 비늘과 9톤 이상의 코끼리 상아를 적발한 바 있다.

야생동물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방식을 전환하고 △소비문화를 변화시켜 야생동물 수요를 줄이는 한편, △불법 야생동물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WWF는 소비행동학자와 시장조사기관, IT 기업, 광고기획사, 여행사, 시민단체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 Ami Vitale WWF-UK

플라스틱

해역은 중국 흰돌고래와 푸른바다거북, 산호초 등 6,000종의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mm 이하 크기의 작은 입자로 정의되고 이는 달 위에 서서 바라보는 서울의 보도블록 정도의 크기에 해당된다.

WWF와 호주 뉴캐슬 대학이 6월 발표한 '플라스틱 없는 자연(No Plastic in Nature)' 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1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약 5g 정도로 신용카드 1장, 볼펜 한 자루 생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양과 동일하다. WWF의 보고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모두 플라스틱 입자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2000년 이후 사용된 플라스틱 양은 이미 그 이전에 생산된 양을 넘어섰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자연에 유출되어 해양생태계와 동식물 서식지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WWF는 자연에 플라스틱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No Plastic in Nature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자연에 유출된 플라스틱은 서식지를 파괴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한다.

WWF의 캠페인은 쓰레기 줍기 운동과 같은 개개인의 행동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No Plastic in Nature는 플라스틱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플라스틱 사용 전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제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No Plastic in Nature는 WWF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 전 세계 국가의 플라스틱 정책 공조
- 플라스틱 사용의 순환형 경제 시스템 도입
- 기업의 플라스틱 감축 목표 선언 유도
-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플라스틱 재사용과 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흔적 없는 자연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다.

자연에게 이로운 것은 인간에게도 이롭다.



© WWF

2019년 회계 정보

WWF-Korea의 2019 회계연도는 2018년 7월 1일 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인 2019년 6월30 일에 종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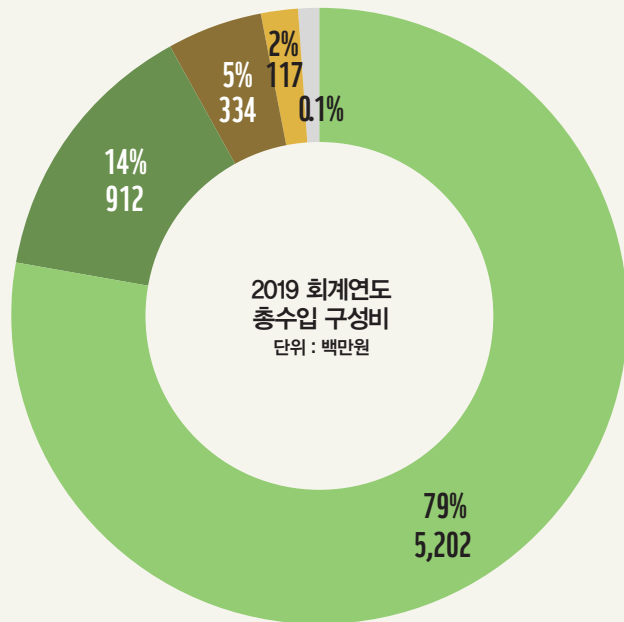
제공되는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회계감사 과정을 거친 자료입니다. 하단의 재무 정보와 그래프는 총수입과 총지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WF-Korea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은 6번째 회계연도입니다.

2019 회계 연도는 2018년 회계연도에 이어 지속 가능한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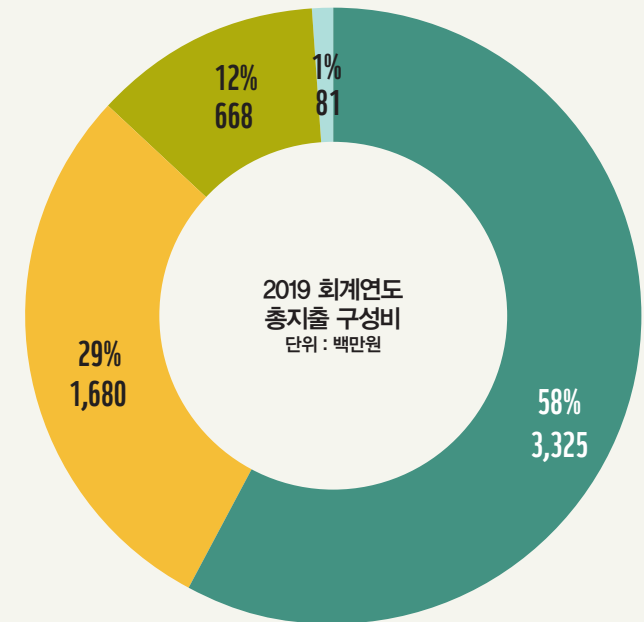
디지털, F2F, DRTV 등 다양한 채널에서 유입되는 정기 후원자의 지속적 증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후원과, WWF-네트워크 지원금을 통해 이번 회계연도에도 증가 추세입니다.

증가된 총수입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 2019 회계연도의 총 수익은 6,594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 수입의 구성은 개인 후원금이 가장 큰 비중인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합니다. 기업 후원금의 비율은 14%, WWF 네트워크 지원금은 5%,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입니다. 나머지 0.1%는 기타 수익입니다.



지출 2019 회계연도의 총 지출은 5,754백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 지출 금액의 58%가 자연보전 활동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후원자 모집 및 관리에 29%, 그리고 12%는 운영 및 관리비용 사용되었습니다. 총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보전 활동은 해양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WWF는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확대하기 위해 원양업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연근해 어민, 수산물 유통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기업들이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를 선언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기업 파트너들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캠페인 진행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WWF-Korea 이사회

이사장

손성환 (前 스웨덴 대사/기후변화 대사)

이사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박은실 (추계예술대학 문화예술 경영대학원 교수)

성래은 (영원무역 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이병욱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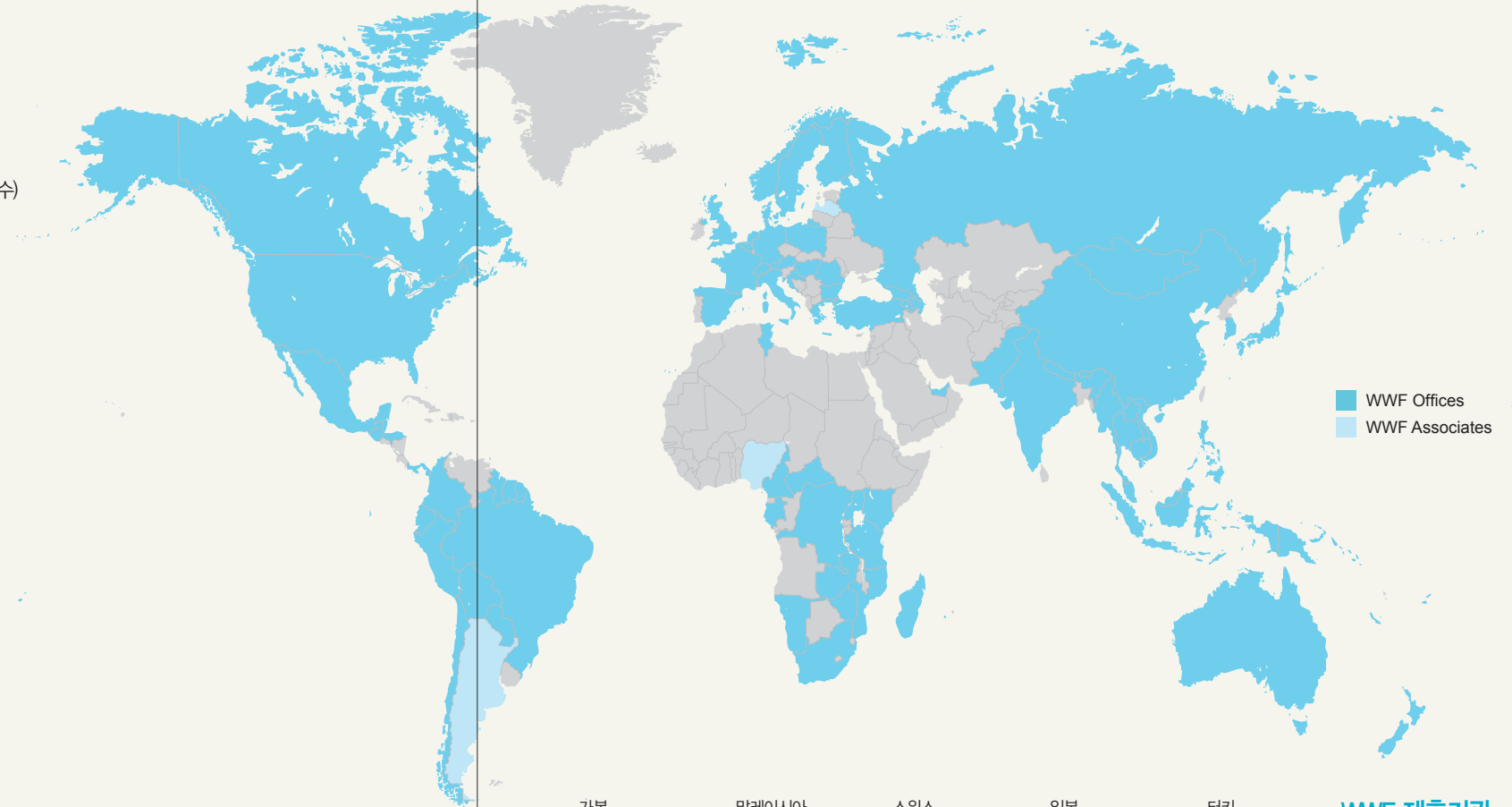
조희경 (가온소사이어티 대표)

홍정욱 (울가니카 회장)

감사

함중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WWF 네트워크



■ WWF Offices
■ WWF Associates

가봉	말레이시아	스위스	일본	터키
가이아나	멕시코	스페인	잠비아	튀니지
과테말라	모로코	슬로바키아	조지아	파나마
그리스	모잠비크	싱가폴	중국	파라과이
나미비아	몽골	아랍에미리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미국	아르메니아	짐바브웨	파푸아뉴기니
네덜란드	미얀마	아제르바이젠	칠레	페루
네팔	베트남	에콰도르	카메룬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영국	캄보디아	프랑스
뉴질랜드	벨리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령 기아나
대한민국	부탄	오스트리아	케냐	피지
덴마크	불리비아	온두라스	콜롬비아	핀란드
독일	불가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필리핀
라오스	브라질	우크라이나	쿠바	헝가리
러시아	솔로몬 제도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홍콩
루마니아	수리남	인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웨덴	인도네시아	태국	

WWF 제휴기관
 Fundación Vida Silvestre (아르헨티나)
 Pasaules Dabas Fonds (라트비아)
 Nigerian Conservation Foundation (나이지리아)

An aerial photograph of a polar bear and its cub walking across a vast, fragmented sea ice field. The ice consists of numerous small, irregular floes separated by dark, narrow channels of water. The overall color palette is a range of blues, from light cyan to deep, dark navy. The polar bear is in the middle ground, and the cub is further away to the right. The text 'Together Possible' is overlaid in white, centered horizontally across the image.

Together Possible

숫자로 본 WWF-KOREA

1961/2014

WWF 국제본부는 196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은 WWF-Korea가 설립된 해입니다.

+ 210,000

21만 명 이상이 WWF-Korea의 자연보전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00

WWF는 전 세계 6개 대륙, 100여 개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2

WWF-Korea는 해양 보전과 기후·에너지
두 가지 보전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WWF(세계자연기금)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wwf.korea.or.kr

© 1986 판다 도형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

